

(구)성실중학교 건물 및 부지 활용 기본 구상

홍 원 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강 수 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sh3737@cni.re.kr

이 연구는 서천군 (구)성실중학교 부지 활용을 둘러싼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고 부지의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과제의 배경과 목적
2. 한산모시 관련 현황과 문제점
3. 타 지역 전통 섬유 활용 활성화 동향
4. 천연 섬유인 한산모시 발전 구상
5. 정책 제언

요약

- 서천군 (구)성실중학교 부지는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바, 본 연구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과의 연계 시각에서 대안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산모시 활용을 둘러싸고 전통문화유산 성격과 지역특화산업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 발전을 위해 천연 섬유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재 관건임
- 전통 섬유로 분류되는 경북의 안동포, 풍기인견, 충남의 유구 자카드 산업을 검토한 결과, 전통문화유산의 유지·보존 차원을 넘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 성패는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
- 한산모시를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의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적 친환경 천연 섬유 네트워크 구축, 향균성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함
-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실중학교 부지를 한산모시 상품개발센터, 향균성 천연섬유R&D센터, 전국규모 축제장소로서 활용을 제안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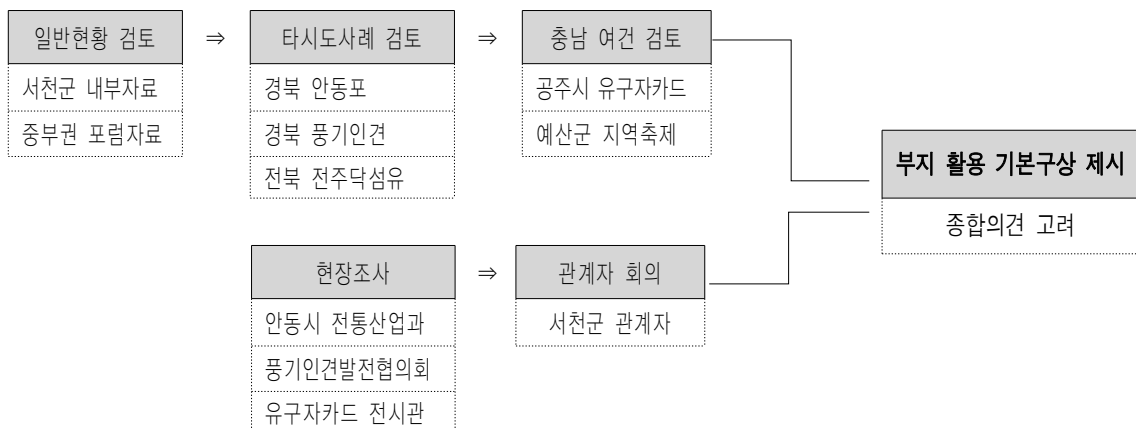
과제의 배경과 목적

- 서천군 지역특화사업인 한산모시가 최근 정체되어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한산모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 섬유로서 조선시대 18~19세기에는 한산모시가 많이 유통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화학섬유, 수입 모시 등에 밀려 쇠락하고 있음
 - 수요 감소에 따라 한산모시의 재배, 가공, 봉제 등 관련 산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의 소득 증대, 고용 창출 공헌이 약화되어 있음
- (구)성실중학교 부지는 명확한 개발방향이 없이 방치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 서천군은 2009년 30억 원을 들여 (구)성실중학교 부지 약 3만 평을 매입하였으나 향후 활용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한상욱 등(2015)은 ‘한산 국제연구소’의 건립·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발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몇몇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으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부지가 공한지로 남아 있음

(구)성실중학교 부지 현황

- 위 치 :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4번지 일원
- 면 적 : 40필지/92,066m², 건물9동/6,289m²
- 입주현황 : 모시식품업체 5개단체, 임대료 연270만원, 현재는 2개 업체 상주
- 주요시설
 - 교 실 동 : 현대모시산업 정련 공장(현재휴업), 창고이용
 - 체 육 관 : 전국당구대회(비정기), 족구연습장(정기) 이용
 - 부속건물 : 한산모시식품 생산공장 이용(모시떡, 앞차, 분말가루 등)

- 서천군은 최근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을 신설하고 한산모시 발전전략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16년11월1일자로 문화관광과의 모시와 소곡주 관련 업무를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산하에 모시 사업팀과 소곡주 사업팀을 운영
- 본 과제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과 연계하여 새로운 한산모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반도 허리 경제권' 이란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을 계기로 유사한 위도에 위치한 경북, 충북, 세종, 충남 등 7개 시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구체적 협력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임
 - 한산모시를 친환경 전통 섬유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안동포, 풍기인견 등 경상북도의 전통 섬유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구)성실중학교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향에 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수행 절차는 서천군 중장기발전계획, 한산모시사업 일반현황,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 내용을 각각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수립을 위한 타시도 사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부지활용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제시함



[그림1] 연구수행절차도

02

한산모시 관련 현황과 문제점

1. 한산모시를 둘러싼 현황

- 한산모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전통섬유이며, ‘한산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1년에 등재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모시는 모시풀 껍질을 벗긴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데, 한산지역의 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음
 - 한산모시는 여름 전통옷감으로서 모시 짜는 기술은 1967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으며, 1974년 충남 무형문화재 제1호로,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지역특화산업으로서 한산모시 활용 산업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음
 - 한산모시잎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잠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최근에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모시떡 등 식재료로서 활용되는 수요가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전통섬유로서 한산모시의 재배, 가공, 봉제 등의 산업 활동은 정체상황에 처해 있음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분류						
모시풀 재배면적(ha)	14.0	9.5	2.7	15.4	10.0	10.0
모시풀 재배농가(호)	4067	1075	524	1046	768	301

자료 : 서천군 내부자료,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 일반현황(2017)

- 한산모시 활용의 다각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특산물인 소곡주와 한산모시를 묶어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산모시짜기를 모티브로 하는 한산모시문화제는 1989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전통모시품을 재료로 하는 모시떡, 모시차 등 식재료로서 활용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한산모시의 활용이 다각화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지정(2009), 한산소곡주 6차산업화 지원, 한산소곡주축제(2015) 등 소곡주 육성 지원이 최근 강화되고 있음
- 한산모시 활용 지원사업은 시설의 유자운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천군 2017년 기준 한산모시 활용 관련 본예산은 46억 원으로 대부분은 한산모시관 등 시설의 증개축 및 시설운영에 투입 예정
 - 그 외 보조금 지원은 소곡주 명품화, 소곡주 관련 6차산업화 등에 주로 투입되고 있음

2. 한산모시 정책의 문제점

- 첫째, 한산모시 활용은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측면과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
 - 전통 유산으로서 한산모시는 ‘한산모시짜기’를 핵심으로서 주로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기능보유자 지정 및 후계자 양성 등 모시짜기 기술의 전승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지역특화산업 측면은 한산모시의 상품화와 판매를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장 수요를 확보하여 생산 및 판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음
 - 현재 한산모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며, 각 발전방향이 상호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전통문화유산과 지역특화산업은 그 성격과 발전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전통문화유산은 ‘한산모시짜기’라는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정책은 보존과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범주임
 - 한편 지역특화산업은 ‘한산모시’라는 섬유 소재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정책은 제품의 상품화와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정책의 범주임
 -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은 공급자, 수요자, 지원방식 등 관련 생태계가 상이함

[표1] 전통문화유산 측면과 지역특화산업 측면의 비교

성격 구분	전통문화유산	지역특화산업
대상	한산모시 짜는 기술(공예)	한산모시 응용 제품
목표	전통기술(공예)의 유지·보존	지역 소득증대, 고용창출
공급자	기능보유자	제조업자
수요자	문화유산 향유자	제품 소비자
지원정책	문화관광정책	지역산업정책

- 두 측면 모두 모시품의 재배, 가공, 제품화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나, 그 지향성은 다름
 - 모시품의 재배, 가공, 제품화 과정은 무형문화유산이나 지역특화산업 모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은 기술의 공예성 내지 예술성을 지향하며 시장 상품성은 부차적인 반면, 지역특화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 상품성이 생명임
 -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화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됨
- 둘째, 한산모시를 활용한 천연 섬유산업의 부진이 한산모시 활용의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한산모시 활용은 현재 전통문화유산, 천연 섬유, 식품 재료 등 3대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3대 응용분야는 속성상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천연 섬유로서 한산모시는 시장수요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한산모시를 실생활과 떨어진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물게 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의 가치도 퇴색시키고 있음

[표2] 천연 섬유 한산모시의 생산량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생산량(필)	17,000	4,100	3,529	1,292	635
재배면적(ha)	14	9.5	2.7	15.4	10

자료 : 서천군 내부자료,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 일반현황(2017)

- 이에 따라 한산모시의 재배농가, 종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어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임
- 천연 섬유인 한산모시에 대한 수요 감소는 시장에서 한산모시의 틈새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함
 - 전통 섬유로서 한산모시는 화학섬유가 주도하는 섬유시장에서 틈새시장 전략을 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실적임
 - 과거 고급 의복으로 사용되던 한산모시는 화학섬유와 수입 모시에 밀려 시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제품군에서 발생하고 있음z
- 한편, 한산모시가 식품재료로서 활용되는 추세는 활용의 다각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최근 모시풀을 활용한 모시떡 등 새로운 응용 분야가 개발되어 지역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

[한산모시떡, 인기 ‘꿀맛’]

충남 서천군 특산품 한산모시떡의 인지도가 꺾충 뛰어올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서울 지역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남 영광모시떡(40.7%)에 이어 한산모시떡(26.4%)을 선호했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 가장 먼저 상업화에 나선 영광모시떡보다 5년 늦은 2010년 시장에 뛰어든 한산모시떡의 인지도가 크게 오른 것이다. 연간 300억원대인 국내 모시떡 시장에서 한산모시떡은 매출액이 100억 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13년 11월26일)

- 이러한 움직임의 근거에는 한산모시 잎이 영양 측면에서 유익할 뿐 아니라 모시의 청혈·지혈·해독·항균 작용(동의보감)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

3. 한산모시 자원 활용의 전망

- 현재와 같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산모시는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한산모시는 기능보유자 양성 등 모시짜기 기능을 전수받을 인력을 유지하는 것부터 곤란을 겪고 있어 박물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 못함
 - 전통 섬유로서 한산모시는 상업화가 미비하여 판매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양화되어 명맥 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 식품재료로서 한산모시 잎은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주력상품인 떡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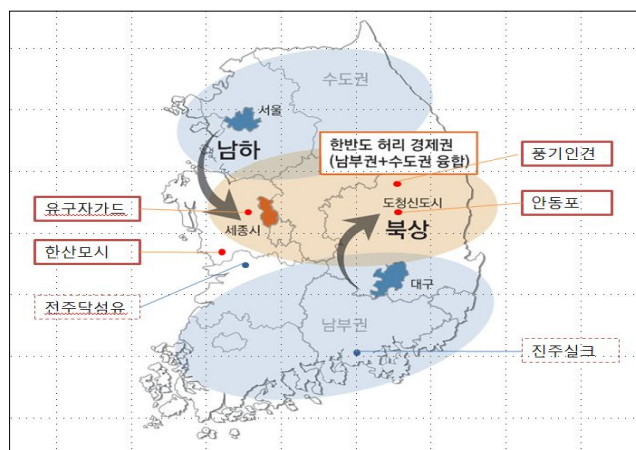
- 천연 섬유인 한산모시에 대한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한산모시 활용 활성화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섬유로서 한산모시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보되어야만 재배, 가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선순환이 확보됨
 - 현재 이러한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고리는 한산모시라는 전통 섬유에 대한 시장 수요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 분야에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
 - 한산모시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천연 섬유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시의적절함

03 타 지역 전통 섬유 섬유 활용 활성화 동향

- 본 연구는 한산모시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안동포(경북 안동시), 풍기인견(경북 영주시)을 중점 조사하였음
 - 천연 전통 섬유는 전국적으로 안동포, 풍기인견, 전주닥섬유, 진주실크 등이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에 착안하여 시간과 인력의 제약을 감안하여 충남의 한산모시, 유구자카드, 경북의 안동포, 풍기인견 등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수행함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상 개요〉

-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란?
 - '한반도 허리'는 한국 중심인 북위 36도에 걸친 경북,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등 7개 시도 포괄
 -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7개 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경제권 조성
- '한반도 허리 경제권' 추진 경과
 -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경북도청 이전 등을 계기로 경북도에서 제창(2016년)
 - 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중부권 정책협의회 공식 출범(2016.6.21.)
 - 중부권 정책포럼 개최(2016.7.19.)
- 주요 협력 의제
 -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중부권 내륙동서철도 조기 건설 등 14개 사업
 - 상생발전 사업: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등 4개 사업



[그림2] 한반도 허리 경제권과 조사 지역
출처: 대구매일신문(2017.3.13.)의 그림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임

1. 안동포의 현황

- 안동포는 대마로부터 추출한 섬유 소재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 섬유임
 - 경북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포로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임
 - 마포·대마포라고 하는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며, 통풍이 잘되고 열전도성이 커서 시원함을 유지하는 기능성 소재임. 원단의 내구성이 크고 수명이 길며 물세탁에 강도가 커서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의복의 소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음
 - 그러나 순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안동포는 제작과정의 어려움 및 인건비로 인해 매우 고가로 책정되고, 이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항상 있어왔음(한 필당 120만원 정도로서, 의복 한 벌 당 2~300만원 정도 수준임).
- 안동포는 전통문화유산이자 지역특화산업으로서 한산모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안동포에 대한 수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마재배 농가와 안동포 제작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현재 안동포 전시관에 납품하는 대마재배 농가는 18농가, 순수인력은 50명이 전부이며, 연평균 총 판매액은 1억 7천 정도에 그치고 있음(기계화 생산 관련 부문은 별도임)
 - 전통산업으로서 안동포의 주요 수요처는 수의이며, 수요처도 대부분 고급 수의를 찾는 소수의 사람들임. 그간 아동복, 교복 제작 등의 시도도 있었으나, 기성복으로 판매하기에는 가격경쟁력이 없음
- 안동포는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애쓰고 있음
 - 안동포 기능보유자 3명 중 2명이 2016년에 별세하고 2017년 현재 단 1명만이 남게 됨. 현재 기능보유자 밑에 조교 1명, 후계자 1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안동시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기능인력양성사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음
 - 안동시는 올해 마지막 기능보유자와 함께 안동포의 제작과정 및 전통유산으로서의 명맥을 기록하기 위한 도서출판 사업을 계획 중임. 2017년 사업으로 안동포 홍보영상물과 책 제작을 계획 중에 있음
 - 전통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로에서 도지사의 역점 시책으로서 안동포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음.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5:5에서 7:3으로 조정되었으며, 전통산업과 관련된 국비공모사업에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음.

- 안동포는 직조과정의 기계화를 실현하여 수공업적 제조방식을 탈피한 상황임
 - 수제 안동포를 생산자조합에서 별도의 인증마크로 정품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안동에서 재배된 대마를 재료로 안동삼베를 제작하고 있는 공장이 존재함
 - 기계화를 통하여 안동삼베를 제작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도로서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음

(주)안동삼베 공장소개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953
-	국내 최초 100% 삼베사 개발 100% 기계화 공정으로 대마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1981년 자체대마 연구소를 개설한 이래 상포용, 삼베 섬유를 연구 개발 중임. 국내에서 삼재배, 제직, 가공, 봉제 등 전 공정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임. 전통수익인 삼베수익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100% 삼베섬유를 개발하여 정규격에 맞게 수익을 생산하고 있음.

자료 : <http://andongsambae.co.kr>

2. 풍기인견의 현황

- 풍기인견은 목재 펄프로부터 추출한 천연 섬유소재로서 레이온을 원사로 하며, 전국 생산의 80% 가량을 생산하고 있음
 - 인견은 100% 레이온사로 제직한 재생섬유 옷감으로,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건조 시간이 빨라 여름철 옷감, 안감, 속옷, 침구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관리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대중성 확보에 성공한 대표적인 전통섬유산업임
- 풍기인견은 전통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풍기인견은 북한의 직조기술을 가지고 있던 실향민이 정착하여 일으킨 섬유산업이라는 점에서 유구자카드와 유사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음

- 현재 풍기인견의 원사인 레이온은 대부분 수입하는 상황으로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성격은 상당부분 빛바랜 측면이 있으나, 영주시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음
- 지역경제에서 풍기인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왔음. 특히 2012년 ‘풍기인견’이라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산업으로의 인지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음.
-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가입된 제조사들은 반드시 풍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단을 사용해야 하고 가봉까지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철저한 원칙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됨.

● 풍기인견은 상품화 단계를 넘어 하나의 섬유산업으로서 시장입지를 굳혀가고 있음

- 풍기인견은 원단만 제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단 제조부터 다양한 상품의 제작까지 연결되어 상품화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 즉 섬유 제조와 완제품 제조를 함께 하고 있음
- 다른 섬유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 따른 위험성이 있으나, 풍기인견의 경우 인견에 필라멘트¹⁾를 사용하여 냉감성에 특화된 섬유제품으로 상품차별화에서 우위를 차지함
- 이는 모방이 어렵고 틈새시장 공략에 적합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기대함

● 풍기인견은 타 소재와의 결합을 통해 기능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때문에 계절성 의류로서 경쟁력이 있는 풍기인견의 시장성이 더욱 확보되었음
- 린넨, 마를 원사로 사용하는 원단의 경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풍기인견은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원단과의 혼방을 시도하고 있음. 개별 사업자들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임.
- 풍기인견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줘야 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윤을 7-8배로 설정하는 다른 상품과 다르게 3배수 이하로 설정함. 유통구조를

1) 섬유는 무한히 긴 섬유와 20-100mm 정도의 짧은 섬유가 있다. 긴 섬유를 장섬유 또는 필라멘트(Filament) 섬유라 하고 짧은 섬유를 단섬유 또는 스테이플(Staple) 섬유라고 한다. 천연 섬유로서 장섬유는 실크가 그 대표로 1000-1500m 정도며 인조 섬유는 무한히 길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차이다. 필라멘트 섬유를 몇 올씩 합하여 한 올의 실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필라멘트 사라 하고 단섬유의 집합체를 방적하여 만들어 놓은 실을 방적사라 한다.

줄여서 가장 싸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풍기인건의 발전을 위해 R&D센터 설립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임
 - 지자체의 지원으로 풍기인건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졌으나,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R&D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자 국가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센터를 수립하는 것을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신청한 상황임
 - 이외에, 대구의 섬유관련 연구소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산학연 연계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상황임

3. 유구자카드의 현황

- 유구자카드는 충남 공주 유구읍에서 발달한 섬유산업으로서 자카드 방식에 의한 방직 기술 업체가 집적된 단지임
 - 자카드직물은 여러 색의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짜낸 원단으로서 세탁 후에도 무늬에 손상이 없으며, 재질과 문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지만 제조 형태 때문에 고가의 원단에 속함.
 - 유구 자카드직물 산업은 1950년부터 제직산업이 시작되었고, 인테리어 직물, 산업용 소재 및 최첨단 기능성 자카드 직물을 제직하여 8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자카드 집적지역임.
- 유구자카드는 지역특화산업으로서 공주시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음
 -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는 총 29천평의 면적으로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종으로 7개 업체 및 1개의 연구소가 입지해 있음. 2016년 기준 전체 종업원 수는 88명임.
 - 공주시는 유구지역의 화려했던 섬유산업을 부흥시키고 섬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하고자 섬유도시로서의 위상강화에 힘쓰고 있음. 2016년 유동인구가 많은 공주시내 지역에 자카드섬유전시 홍보관을 설립하여 지역특화상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유구자카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 및 R&D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충남 공주 유구 직물단지는 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으나 섬유산업 침체에 접어들었었음. 이후 2000년 11월 지역 특화 상품인 자카드직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에 인식을 같이하고 2002년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카드직물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음. 2003년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7년 3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자생력을 갖춘 지원센터로 자리잡았음.
 -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비 31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42억원 등 총 89억을 투입해 약26천평 규모로 조성되었음.

4. 타 지역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 한산모시, 안동포, 풍기인견, 유구자카드는 모두 전통 섬유(기술)이기는 하나,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한산모시와 안동포는 대표적 전통 천연 섬유이며, 풍기인견과 유구자카드는 전통산업이라기보다는 지역특화산업의 성격이 강함
 - 한산모시와 달리 다른 섬유들은 자신의 틈새시장을 갖고 있음. 안동포는 수의시장, 풍기인견은 냉감성 의류, 유구자카드는 한복임
 - 기계화 정도는 한산모시가 가장 낮는데 반해, 안동포는 중간단계에 있으며, 풍기인견과 유구자카드는 매우 높음

구분	한산모시	안동포	풍기인견	유구자카드
소재	천연섬유	천연섬유	천연섬유	제한없음
전통문화유산 성격	강함	강함	약함	약함
지역특화산업 성격	약함	중간	강함	강함
대표 수요처	의류	수의, 도포	냉감성 의류	갑사 등 한복
기계화 정도	낮음	중간	높음	높음

[표3] 한산모시와 타 전통섬유와의 비교

- 타 지역 사례가 한산모시 활용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①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필요성, ②

틈새시장 확보의 중요성, ③ 차별화 포인트의 확보 전략 등임

- 첫째, 천연 섬유인 한산모시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안동포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유지·보존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발전이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음. 안동포의 경우 전통문화유산 유지·보존은 안동시청이 담당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은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작업방식을 탈피하고 기계화 생산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치열하게 모색되고 있음
- 둘째, 안정적인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발전의 관건임
 - 안동포는 수의와 도포에서 견고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음. 물론 수의나 도포에 대한 시장 수요는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기계화를 이룩하고 수요의 다각화를 모색할 기반을 확보함
 - 풍기인견은 기능성 냉감성 의류, 유구자카드는 한복 등에서 독자적인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산모시는 이러한 점이 취약함
- 셋째, 한산모시는 친환경 전통 섬유로서 차별화 포인트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한산모시는 친환경 천연 섬유라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 등이 섬유 재질의 특성으로부터 부여받은 속성임.
 - 한산모시가 고가 제품이므로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가 기꺼이 구매할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필요한 바, 이는 주로 유아나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 알러지 질환에 대한 완화 내지 예방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향균성은 기계화를 도입한다고 해서 크게 희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04

천연 섬유인 한산모시의 발전 구상

- 한산모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한산모시는 전통문화유산, 지역특화산업(한산모시 섬유, 한산모시옷 식재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현재 전통문화유산의 성격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로서 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임
- 한산모시의 지역특화산업화를 위해 친환경 전통 섬유 네트워크 구축, 항균성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함
 - 한산모시를 서천군의 지역자원으로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전통 섬유로서 바라보고 유사한 성격의 친환경 전통 섬유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또한 안동포, 풍기인견, 전주닥섬유 등 친환경 전통 섬유들과의 비교우위를 항균성으로 설정하여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1. 친환경 전통 섬유 네트워크 구축

-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를 친환경 전통 섬유라는 공통성을 연결고리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은 친환경 전통 섬유라는 공통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과 지역특화자원 간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음(아래 표 참조)

구분	친환경 전통 섬유 네트워크	지역 특화자원(한반도 허리경제권) 네트워크
공통성	소재 성격	지역 공통성
대상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 진주실크	한산모시, 유구자카드, 안동포, 풍기인견, 전주닥섬유
장점	이해하기 쉬움 명실상부한 전국적 네트워크	한반도 허리 경제권 플랫폼 활용 가능
단점	네트워크를 조직 및 협력에 장시간 소요	상이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표4] 한산모시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접근

- 두 가지 네트워크 구성 방식 중 모두에 속하는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를 핵심으로 하고 유구자카드, 풍기인견을 외연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이 탄력적임
-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허리 경제권에 속하는 7개 시도는 이미 공감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므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 현재 허리 경제권에서 제시하는 사업은 대부분 기반시설 위주의 의제로서 친환경 전통 섬유 네트워크는 허리 경제권의 주요 협력 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큼
- 네트워크는 공동 마케팅, 각각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 발굴을 핵심 목표로 함
- 공동 마케팅은 전국규모 축제 순환 개최, 주요 섬유박람회 공동 참여 등을 제안함
 - (가칭) ‘대한민국 친환경 전통섬유전’이라는 전국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충남 서천군,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 대한민국섬유교역전(Preview In Seoul) 등 대표적인 전국규모의 섬유박람회에 매년 공동으로 참여하여 잠재적 수요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도록 함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 소개〉

대한민국 섬유교역전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매년 서울 코엑스 등지에서 개최하는 무역전시회로서, 글로벌 마케팅력 제고를 통해 섬유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섬유산업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개선을 위한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7년에는 8월 28일(월) ~ 8월 30일(수) / 3일간 서울 COEX 1층 A홀에서 500개사 700부스가 참여할 예정임. 행사구성은 전시회, 세미나,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패션쇼 등이며, 전시품은 원사, 직물, 홈텍스타일, 부자재 및 악세서리, 아웃도어 의류, 의류 완제품 등임

- 한편 서울시와 지방 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 사업은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가칭) ‘친환경 전통 섬유 글로벌화 사업’ 과 같은
국책과제의 일환으로서 기획하는 것이 현실적
 -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는 각각 상이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음: 한산모시는 수작업단계,
안동포는 공장 생산 단계, 전주닥섬유는 상품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 필요
 - 개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명분이 약하므로 국가적으로 의의
있는 명분을 갖추고 그 일환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2. 향균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 마련

- 한산모시는 안동포, 전주닥섬유와 차별화를 해야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는 비록 친환경 전통 섬유라는 공통성이 있으나, 모두 상이한 소
재를 갖고 있으므로 특징점이 있음: 한산모시=저마, 안동포=대마, 전주닥섬유=목재펄프
 - 한산모시는 자체의 특징점을 살려야만 경쟁과 협력이 가능함
- 한산모시는 향균성을 특징점으로 시장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 풍기인견이나 전주닥섬유는 향균성은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동포는 향균성이 있다
고 알려져 있으나 두드러지지 않음. 반면 한산모시는 향균성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동의보
감 등)
 - 최근 아토피, 알러지 등 환경성 피부질환이 만연한 상황이므로 향균성은 시장성이 있다고 판
단되며, 특히 유아용품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고가의 제품을 사고자 하는 시장 중 하나임

〈주요 알러지 질환,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에 많이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인 3개 환경성 질환(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은 전체(93만 3천 명) 환자 중 대비 12세 이하(45만 4천 명)가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3세~19세(11만 8천 명)가 12.7%, 20대(11만 명) 11.8% 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청소년기(12세이하)에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로 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7월(여름)에 15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2016.6.5)

- 한산모시의 향균성은 이미 입증된 것이라기보다는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해야 할 상황임
 - 한산모시의 향균성은 잠재력으로 봐야 하며, 소재 상태, 가공 방법 등에 따라 향균성의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그 특징점이 과학적으로 입증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함
 - 향균성으로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관련 R&D와 제품 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05 정책 제언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실중학교 부지는 ①한산모시 상품개발센터, ②항균성 천연 섬유 R&D 연구센터, ③전국규모 축제 장소 등의 부지로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제안은 한산모시, 안동포, 전주닥섬유 등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사업으로 확정되고 친환경 전통 섬유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함
 -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협력사업으로 국책과제화하여 지원을 받아야만 안정적인 예산 및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타 시도 기초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와 상호 경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함
- [한산모시 상품개발센터]는 항균성을 특징점으로 시장 수요가 있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함
 -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보는 수준을 탈피하여 시장에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품질, 디자인, 가격을 갖춘 완제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가령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유아용 침구 완제품 개발)
 - 제품을 개발하는 것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산모시 직조뿐 아니라, 연구개발, 봉제, 디자인, 포장 등 다양한 부문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 공간 수요 발생함
 - 한산모시의 상품개발은 명품화의 길을 걷는 것이므로 센터공간도 쾌적한 근무환경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

- [항균성 천연섬유 R&D 연구센터](또는 항아토피 천연섬유 R&D센터)는 지속적인 R&D수행을 위한 센터로서 (구)성실중학교 부지에 입지해야 함
 - 해당 연구센터는 한산모시의 품질과 항균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R&D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리적으로 적정규모의 센터 설립이 필요
 - 해당 연구센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대학, 정책연구기관, 국립생태원 등 연구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허브로서 역할

- [전국규모 축제 장소]는 (가칭) “대한민국 친환경 천연섬유전” 을 유치하여 개최하는 장소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행사장 용도는 부대적인 기능으로 설정해야 함
 - 대한민국 친환경 천연섬유전은 전국규모의 행사로서 안동포, 전주다섬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친환경 섬유가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서천군의 한산소곡주, 모시떡, 국립생태원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산모시관으로 부족할 가능성도 있음
 - 단, 이러한 행사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므로 전용 축제 공간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항상적 용도에 부가하는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가칭) “대한민국 친환경 천연섬유전” 을 순회 개최하는 경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을 담당할 인력 양성을 의식적으로 모색해야 함
 - 전국적 규모 행사를 순회 개최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의 사례를 보면, 순회 개최는 인원 동원은 효과가 있으나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이 없을 경우 이벤트에 그치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예산군 관계자 인터뷰)
 - 따라서 관련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한산모시 지역특화산업을 담당할 인력 또는 기업을 양성하는 데 응분의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상 및 정책방향은 후속연구를 통해 구상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풍부한 사회적,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구상제시에 그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이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정책사업화, 관련 R&D 등 과제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참고 문헌

- 한국사업전략연구원, 2009, 푸른동산 매입에 따른 건물 및 토지 활용방안 연구, 충남서천군
한반도 허리경제권 7개시도 연구원. 중부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중
부권 포럼 1차 회의(2016. 7.19.), 대구경북연구원.
한상욱 등, 2015, 2025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충남연구원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 2017.1. 사업단 일반 현황. 충남 서천군

기타 자료

- 대구매일신문, ‘허리 경제권 추진 배경과 필요성’ 2017.3.13. 대구매일신문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주요 알리지 질환,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에 많이 발생. 2016.6.5.,
한국보건복지부
한겨레 신문, ‘한산모시떡 인기 ‘꿀맛’ ’ . 2013.11.26. 한겨레신문사

인터넷 자료

- 서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seocheon.go.kr>
안동시청 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공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foti.or.kr>